

韓藥材 規格集 制定方案에 관한 研究

주 영 승*

I. 序 論

醫療手段으로서의 藥品은 그 安定性과 效用面 등에서 정확한 규격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醫藥의 發達史에 있어서 東洋醫學과 西洋醫學은 일정한 分岐點을 중심으로 하여 이론 자체의 차이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약품 이용에서도 東洋醫學이 주로 천연물을 사용하였다면 西洋醫學은 주로 추출물, 합성물을 사용하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중 자연상태의 천연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수함으로써 東洋醫學의 독특한 이론을 전개하여온 한의학의 약물 사용법은, 西勢東漸의 세계적인 흐름에서 近代史에 있어서 일시적인 踏步와 沈滯를 겪게되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추출물, 합성품의 부작용때문에 새로운 각광을 받으면서 연구되어지고 있다. 일시적이었으나 이러한 시대적인 制約과 자연물을 그대로 취하여 간단한 가공을 거쳐 사용하는 관계로 동양의학의 약품은, 그 規範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어 확실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3년 한의계를 흔들었던 약사법 개정 과정의

근본적인 원인도 한약재 취급은 웬만한 지식만 가지면 취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밀바탕에 깔려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는 곧 한의학 이론의 객관적인 설명의 결여와 이중에서도 한약재의 정확한 규격화의 어려움이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서 1951년 國民醫療法에 韓醫師制度가 만들어진 이후 어느 한해 醫權문제에서 조용히 지나가지 않은 한의계의 현실은 그 원인이 여러가지로 분석되고 있으나 한약재 부문에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약사법과동을 겪는 과정에서 獨立韓醫藥法을 제정함으로써 독립된 한약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공인서로서 현재의 大韓藥典 生藥부분이나 대한약전의 한약(생약) 규격부분 등을 한의학계의 입장에서 유관분야의 내용을 끌어들여 개정, 증보, 삭제함으로써 한약재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어찌되었던 韓藥師제도의 설치가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의학계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의 時勢의 흐름에 일시적으로 대처하여 왔던 자세에서 벗어나 능

* 전주우석대학교 한의학과 본초학교교실

※ 본 논문을 제 17회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 발표 논문으로 제출함

동적으로 장차의 구도를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것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설계할 수 있듯이 한의학계의 입장에서 상용하고 있는 한약재의 올바른 정의를 내리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인 것이다.

가장 최근에까지 한약재 및 생약재에 대한 규정을 내린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大韓藥典(1992년판)에 수재된 약품은 전체적으로 1428 품목 중 生藥은 130 種이며 中國藥典(1989년판)은 전체 1760 種 중 中藥材 509 種이고 日本藥典(1991년판)은 전체 1221 種 중 生藥 178 種이 들어있다. 우리나라의 한약재 규격화의 시도는 1959년 국립 중앙화학연구소(현 국립보건원)의 생약규격집을 시작으로 [한약규격에 관한 조사연구](1968년: 서울대 생약연구소), [한방치료제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1978년: 보사부), [한방치료제의 표준화 규격통일연구](1981년: 보사부)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大韓藥典의 한약(생약)규격집(1985년)은 384종의 한약재을 규격화 하고자 시도한 바 있으며, 대한약전의 한약(생약)규격집 추보(1986년)와 더불어 한방의료보험에 적용되는 한약재의 규격을 설명하였고 이에 따른 주해서가 발간된 바 있다(1988년). 東洋傳統醫學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중국과 東西醫學의 구분이 모호한 일본은 차지하고라도 우리나라의 한약재 규격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한약재 취급에 대한 시비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論者는 한의학계의 주도로 기존의 내용을 충편집하고 재정리한 韓藥材規格集 編纂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에 1차로 한방의 치료수단으로 사

용되는 한약재 중 상용되는 408種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하는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이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韓藥材規格集의 制定方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韓國, 中國, 日本의 藥典 沿革

가. 韓 國

- 1939년 조선한약국방에 수재할 84種의 식물성 한약 발표
- 1940년 제2회로 91종의 식물성 한약 발표
- 8.15 해방후 우리나라 약전이 없어 일본 약국방 제5개정을 준용
- 1953년 12월 28일 공포된 약사법 제28조에 의하여 1954년 12월 2일 보건부장관의 약전 위원 위임
- 1956년 4월 20일 제2회 약전위원회에서 대한약전 제정
- 1958년 1월 10일 제6회 약전위원회에서 약전편찬에 관한 총괄적 심의
- 1958년 10월 10일(약의날) 보건사회고시 제25호로서 대한 약전공포
(총품목 635품목)
- 1965년 11월 23일 중앙약사심의 위원회 약전 분과위원회에서 대한약전의 전면개정 의결
(9개 소분과위원회 구성—56명 *생약유지소 분과 7명)
- 2년동안 약 200여회의 약전분과위원회 개최
- 1968년 10월 10일 제 2개정
(전 수재품목 제1부 725품목…生藥 71 生藥 製

劑 25품목 포함, 제2부 457품목 …생약 63 포함)	(1부 785품목 2부 427품목 계1212품목) · 1987년 4월 22일 제5개정
1976년 12월 10일 제3개정 (1부 656품목 2부 357품목 계1013품목)	(1부 868품목 2부 440품목 계1308품목) · 1992년 4월 7일 제6개정
1982년 3월 1일 제4개정	(1부 986품목 2부 442품목 계1428품목)

大韓藥典 發刊 沿革

년 월 일	내 용	수재품목수	비 고
1958.10.10	대한약전제정공포	635	
1967.10.10	대한약전제2개정제1부	725	
1968.7.15	대한약전제2개정제2부	457	
1968.8.29	대한약전제2개정추보1		시험법개정및 정오표
1969.5.28	대한약전제2개정추보2	1	삭제2품목
1972.1.24	대한약전제2개정추보3	49	
1976.12.10	대한약전제3개정제1,2부	1013	제1부 656품목 제2부 357품목
1978.2.1	대한약전제3개정추보1	146	
1979.1.13	대한약전제3개정추보2	72	
1982.3.1	대한약전제4개정제1,2부	1212	제1부 785품목 제2부 427품목
1982.11.24	대한약전제4개정추보1	30	
1987.4.22	대한약전제5개정제1,2부	1308	제1부 868품목 제2부 440품목
1988.3.16	대한약전제5개정추보1	8	
1992.3.	대한약전제6개정제1,2부	1428	제1부 986품목 제2부 442품목

나. 中 國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 1950년 1월 위생부의 지시(민족화, 과학화, 대중화)로 중국약전편찬위원회 창립
- 1950년 7월 약전위원 49인 임명(8개 분과)
 - ㄱ. 名詞 ㄴ. 化藥學 ㄷ. 製劑 ㄹ. 植物學
 - ㅁ. 生物製品 ㅂ. 動物學 ㅅ. 藥理 ㅇ. 劑量
- 1951년 4월 24일-4월 28일 북경에서 중국약전편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 1953년 2월 5일 약전 인쇄(531종)…전국分會의 의견을 들어 1957년 중국약전에 수재
- 1957년 7월 28일-8월 5일 위생부에서 中藥이 빠져 있는 것이 큰 결점임을 지적한 후 中藥을 신기로 결정
- 1958년 상무위원회의 연구결과를 위생부에서 비준하여 中醫專門家 8인 中藥專門家 3인으로 中醫藥專門 委員會 결성
- 1959년 6월 25일-7월 5일 제2차 전체회의 개최
- 1963년 중국약전 완성
- (1310종으로 1,2부로 나눔)
- 1965년 1월 26일 위생부에서 중국약전 공포
- 1966년 文革의 영향으로 위원회 업무 중지
- 1972년 4월 28일 국무원의 결정으로 5월 31일-6월 10일 北京에서 編制 國家新藥典會議 개최
- 1973년 4월 북경에서 제2차 全國藥典工作會議 개최
- 1977년판 중국약전 완성
- 1979년 4월 위생부에서 중국약전 반포(1925종)
- 1979년 4월 30일 위생부에서 112인으로 약전위원회 구성
- 1985년 9월 출판(1489종)
- 1986년 5월 5일-5월 8일 위생부에서 150인으로 약전위원회 구성
- 1989년 12월 출판(1751종)

中國 藥典 發刊 沿革

년 월 일	내 용	수 재 품 목 수	비 고
1957	중국약전제정	531	
1965.1.26	중국약전개정	1310	1부 643종 2부 667종
1979.4	중국약전개정	1925	1부 1152종 2부 773종
1985.9	중국약전개정	1489	1부 713종 2부 776종
1989.12	중국약전개정	1760	1부 784종 2부 976종

日 本

의 선정을 위임

- 1880년 10월 위생국장의 일본약국방 제정건의
- 11월 太政官에서 中央衛生會에 일본약국방
- 1881년 1월 일본약국방 編輯總裁와 委員의 임명
- 1885년 10월 13일 일본약국방 완성
- 1886년 6월 25일 内務省令으로 일본약국방

반포

1887년 7월 1일 시행(제1판 약국방)

…수재약품 468종

1891년 5월 개정약국방을 内務省령으로

반포

1892년 1월 1일 시행(제2판 약국방)

…수재약품 470종

1900년 5월 약국방의 수재 약품이 너무 적으므로 확장할 것을 의결.

그러나 대대적인 개정은 장시일이 걸리므로 우선 新藥 몇가지 첨가 결의

1906년 4월 7일 내무대신이 제3개정 일본약국방반포

1907년 1월 1일 시행(제3판 약국방)

…수재약품 505종

1915년 3월 일본약국방 제 4차 개정을 의결
(73품목 첨가, 94품목삭제)

1920년 12월 제4개정 일본약국방 반포

…수재약품 484종

1932년 6월 제5개정 일본약국방 반포

…수재약품 445종

1951년 3월 제6개정 일본약국방 공포

…634품목

*제6개정 일본약국방과 제2개정 국민의약품
집은 각각 일본약국방 제1부와 일본약국방
제2부로 간주

1961년 4월 제7개정 일본약국방 공포

…763품목

1971년 4월 제8개정 일본약국방 공포

…수재약품 1131종(1부:735품목 2부:396품목)

1976년 4월 제9개정 일본약국방 공포

…수재약품 1046종(1부:531품목 2부:515품목)

1981년 4월 제10개정 일본약국방 공포

…수재약품 1016종(1부:539품목 2부:477품목)

1986년 4월 제11개정 일본약국방 공포

…수재약품 1066종(1부:585품목 2부:481품목)

1991년 4월 제12개정 일본약국방 공포

…수재약품 1221종(1부:750품목 2부:471품목)

日本 藥典 發刊 沿革

년 월 일	내 용	수 재 품 목 수	비 고
1987.7.1	일본약국방제1판시행	468	
1892.1.1	일본약국방제2개정	470	
1907.1.1	일본약국방제3개정	505	
1920.12	일본약국방제4개정	484	
1932.6	일본약국방제5개정	445	
1951.3	일본약국방제6개정	634	
1961.4	일본약국방제7개정	763	
1971.4	일본약국방제8개정	1131	1부 735종 2부 396종
1976.4	일본약국방제9개정	1046	1부 531종 2부 515종
1981.4	일본약국방제10개정	1016	1부 539종 2부 477종
1986.4	일본약국방제11개정	1066	1부 585종 2부 481종
1991.4	일본약국방제12개정	1221	1부 750종 2부 471종

라. 韓國, 中國, 日本의 藥典 沿革 비교

내 용	한 국	중 국	일 본
최초제정일시	1956.4.20	1953.2.5	1885.10.13
최초제정공포	1958.10.10	1957.	1887.7.1
개정횟수	6개정	5개정	12개정
개정간격	1-2개정:9년 2-3개정:9년 3-4개정:6년 4-5개정:5년 5-6개정:5년	1-2개정:8년 2-3개정:14년 3-4개정:6년 4-5개정:4년	1-2개정:5년 2-3개정:15년 3-4개정:13년 4-5개정:12년 5-6개정:19년 6-7개정:10년 7-8개정:10년 8-9개정:5년 9-10개정:5년 10-11개정:5년 11-12개정:5년
각개정간 평균	6년8개월	8년	9년5개월
최초의약품총수	635종	531종	468종
마지막개정판의 약품총수	1428종	1760종	1221종
본격적인 생약 기재년도	1968	1965	구분이 모호

2. 韓國, 中國, 日本 藥典의 目次構成(최근)

가. 韓 國

- 고시
- 인사말씀
- 차례
- 머리말
- 개정종사자 명단
- 통칙

· 제제총칙

- 의약품각조 제1부…빈번히 사용되는 원약인
의약품과 기초적 제제
- 의약품각조 제2부…혼합제제와 제1부에 수
재처리아니한 의약품(생약, 생물학적 제제,
위생용품, 제제첨가물)
- 일반시험법
- 찾아보기

나. 中 國

- * 1부……… 중국약전 沿革
 - 약전위원회 명단
 - 前記
 - 本版 藥典新增品種
 - 本版 藥典未收載 1985年版 藥典中
의 品種
- * 2부……… 前言
 - 약전위원회명단
 - 目錄
 - 중국약전 沿革
 - 本板 藥典(2부)新增 品種
 - 本版 藥典(2부)未收載 1985年版

藥典(2부)중의 品種

- 凡例
- 品名 目次
- 正文
- 附錄
- 索引(中文,漢語并音,英文名)

다. 日本(6編으로 大別)

- *1편……… 告示. 目次
 - 沿革 略記
 - まえかき
 - 通則
 - 製劑 總則
- *2편……… 일반 시험법
- *3편……… 제1부 의약품 各條
- *4편……… 生藥 總則, 제2부 의약품 各條
- *5편……… 附錄(의약품各條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藥局方 활용의 중요사항)
- 索引

3. 韓國,中國,日本藥典의 기타 내용 비교

1). 生藥材의 기재순서비교

원칙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으나 필요없는 사항은 제외하였다.

한 국	중 국	일 본
한국명 및 한자명	品名,漢語并音	日本名
生藥名	生藥名	英名
學名(라틴명)	起源,製法	生藥名
起源	性狀	漢名
性狀	鑑別	起源,性狀
確認試驗	檢查(加熱試驗,雜物)	確認試驗

揮發油等)		
純度試驗	含量測定	乾燥減量
乾燥減量	炮制	檢查(灰分,酸不溶性灰分,精油含量)
灰分,酸不溶性灰分	性味와 归經	貯藏
定量法	功能과 主治	*해설*
貯藏法	用法과 用量	本質
	貯藏	名稱
		來歷,製法
		原植物,原動物
		產地,生產
		成分,藥理
		適用
		類藥(同類,類似生藥)
		文獻

2). 通則 비교(生藥 부분)

韓國藥典의 生藥부분 통칙과 거의 유사하며 해설서에서 注와 解說이 추가되어 있음

가. 韓 國

- 生藥의 定義 · 生藥의 種類 · 生藥의 種類別說明 生藥의 乾燥 · 生藥의 取扱 · 生藥의 起源
- 生藥의 性狀 · 가루生藥의 異物사항 · 가루生藥의 부형제 첨가 · 生藥의 保存

4. 韓藥材規格集의 目次構造 및 實例

1) 본 韓藥材規格集의 수재 약물은 本草學 教材(全國 韓醫科大學 本草學 教授 共編)에 수재된 한약물 408種(植物性—336種,動物性—44種,礦物性—28種)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中 國

- 藥材의 質量 標準 · 產地加工 및 炮制規定 · 同一名稱藥材에 대한 설명 · 鑑別法(經驗,懸微,理化)
- 貯藏(7種으로 分류) · 標準品 · 度量衡 단위(4部門 18種으로 分류)
- 기타 檢查에 필요한 有關 사항(13部門으로 설명)

2) 參考文獻

가. 韓 國

李昌福 : 大한식물도감 외18종

나. 中 國

李時珍 : 本草綱目 외26종

다. 日 本

鈴木郁生 외 2人 : 日本藥局方 解說書 외2종

다. 日 本

3)順序

머리말

品名 目次…약물 기재 순서는 植物性,動物性,礦物性으로 분류하여 한글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예 : 植物性…1. 詞子 2. 葛根 3. 甘松香……

中藥……334.厚朴 335.黑芝麻 336.稀簽

動物性…337.鷄內金 338.蚯蚓 339.龜板……中藥……378.海馬 379.海漂礁 380.虎骨

礦物性…381.輕粉 382.爐甘石 383.膽礬……中藥……406.琥珀 407.花崗石 408.滑石

總則

- 이 規格集은 韓藥材規格集이라 칭하며 그 약칭은 規格集이라 한다.
- 韓藥材規格集의 의약품이라 함은 의약품 각조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 韓藥材規格集의 약물適否는 그 의약품 각조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약품 각조의 기재순서및 기재방법은 植物, 動物, 矿物의 한글 가나다 순이며 각 약물에 대하여
 - 藥品名 生藥名 異名 起源製法 植物(動物, 矿物)形態
 - 藥材性狀 產地 懸微鑑別 成分 確認試驗 純度試驗
 - 乾燥減量 灰分 酸不溶性灰分 精油含量 엑스含量 等級
 - 性味 歸經 効能主治 修治 用量 貯藏 禁忌 代表處方例 순으로 기술하였다.
- 한약재은 보통 全形 한약재,切斷 한약재로

나누어서 취급하며 全形한약재은 그 약용으로 하는 부분등을 말리거나 또는 간단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의약품 각조에 규정한다. 切斷 한약재은 全形한약재을 작은 조각,작은 덩어리로 절단,깨뜨린 것,또는 粗切, 中切,또는 細切로 한것으로 따로 규정이 없는 것은 이것을 만드는데 쓰인 全形 한약재의 규정에 따른다.

- 한약재은 따로 규정이 없는 것은 약효가 가장 높을 때 채취한 것이며 60도이하에서 말린 것이다.
- 한약재은 곰팡이 또는 다른 동물에 의한 오손물 또는 혼재물 및 그 밖의 이물을 될 수 있는 대로 제거한 것으로 깨끗하게 다루어야 한다.
- 한약재의 起源으로서 {그 밖의 同屬近緣 植物}, {그 밖의 同屬近緣 動物}등이라 기재한 것은 같은 成分,藥效를 갖는 한약으로서 쓰이는 原植物 또는 原動物을 뜻한다.
- 藥材 原植(動)物의 科名,植(動)物名,學名,藥用部位,礦物類 藥物의 注明類,族,礦石名 혹은 岩石名,主要成分등은 약재의 起源에 표시하였다.
- 한약재의 性狀항은 그 한약재의 대표적인 原植物 또는 原動物에서 그 판정기준이 되는 특징적인 요소를 기재한 것이다. 다만 그 항의 수치는 현미경으로 볼 때의 것을 제외하고는 대략의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同屬近緣 藥物의 形態와 性狀은 그 모양이 명확히 차이가 나는 점을 골라 기술하였다.
- 懸微鑑別은 橫切面을 표시하였으며 조직과 세포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 確認試驗은 화학,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약물중의 함유성분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 중 일반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을 기술하였다.
- 純度試驗은 수분, 잡질등의 검사로써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 엑스함량은 물이나 기타 용제를 사용하여 약재중의 可溶性 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한약재의 等級은 의약품 각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 중 良品인 것의 한계를 정한 것이다.
- 藥材의 性味, 歸經, 效能主治는 한방원리에 기초를 두어 설명하였다.
- 한약재의 修治항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그 한약재의 대표적인 修治法만을 기재하였고 방법은 일반적인 修治總則에 따른다.
- 한약재의 用量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水煎 内服用量이며 성인 1회 사용 용량이다. 약물의 질량은 전조품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신선물을 쓰는 경우에는 따로 설명하였다.
- 한약재은 따로 규정이 없는한 습기 및 충해등을 피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薫蒸劑를 넣어 저장할 수 있다. 다만 이 薫蒸劑는 상온에서 휘발하기 쉬워야하고 그 한약재의 투여량에 있어서 무해하여야하며 또 그 한약재의 치료효과를 변하게 하거나 시험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 한약재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밀폐용기에 저장한다.
- [용기]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밀폐용기에 보존한다.
- [밀폐용기]라 함은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 보존상태에서 固形의 이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내용의약품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밀폐용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기밀용기도 쓸 수 있다.
- [氣密容器]라 함은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 보존상태에서 액상 또는 고형의 이물 또는 수분이 침입하지 않고, 내용의약품을 손실, 풍화, 조해 또는 증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기밀용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밀봉용기도 쓸 수 있다.
- [密封容器]라 함은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 보존상태에서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할 염려가 없는 용기를 말한다.
- [遮光容器]라 함은 광선의 투과를 방지하는 용기 또는 투과를 방지하는 포장을 한 용기를 말한다.
- 禁忌는 원칙적인 내용만을 기술하였으며 일반적인 상식내용은 생략하였다.

· 檢查法

한약재시험법

한약재시험법은 의약품 각조에서 규정하는 한약재에 대한 시험법이다.

검체의 채취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방법에 따라 검체를 취하고 필요하면 기밀용기에 보존한다.

1) 소형의 한약재, 절단한약재, 가루한약재를 잘 섞은 다음 검체 50~250g을 취한다.

2) 대형의 한약재는 잘 저어 섞은 다음 검체 250~500g을 취한다.

3) 1개의 무게가 100g상의 한약재은 5개 이상을 취하여 검체로 하든가 또는 한약재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잘 저어 섞은 다음 검체 500g이상을 취한다.

……증 략……

鏡檢

1) 장치 : 광학현미경을 쓴다. 대물렌즈는 10배 및 40배를, 접안렌즈는 10배를 쓴다.

2) 鏡檢用 표본의 제작

가) 절편…절편을 슬라이드글라스에 취하여 封入劑 1-2방울을 적가한 다음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카바글라스를 덮는다. 관찰에 쓰이는 절편의 두께는 보통 10~20um로 한다.

나) 분말…분말 검체 약 100mg을 膨潤劑 2-3방울을 滴加한 시계접시에 취하여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작은 유리봉의 끝으로 잘 섞은 다음 10분 이상 방치하여 檢體를 膨潤시킨다. 膨潤된 검체의 소량을 유리봉의 끝으로 슬라이드 글라스에 塗抹하고 그 위에 封入劑 1방울을 滴加한 다음 조작편이 뭉치지 않도록 균등하게 펴고 또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카바글라스를 덮는다. 封入劑 및 膨潤劑는 따로 규정하지 않으면 글리세린, 물혼합액(1:1)을 쓴다.

3) 性狀의 각 요소의 관찰-절편은 보통 외측으로부터 내측으로 향하고 다음으로 세포내용물의 순으로 의약품 각조에 기재되어 있어 이 순으로 관찰한다. 분말은 특징적인 것 또는 다량으로 나타나는 것, 드물게 나타나는 것, 다음으로 세포내용물의 순으로 의약품 각조에 기재되어 있어 이 순으로 관찰한다.

II. 본 문

가. 植物性 한약재

· 한약재명 . 생약명 . 이명 . 기원 . 식물형태 . 약재성상 . 산지 . 현미감별 . 성분 . 확인시험 . 순도시험 . 건조감량 . 회분 . 산불용성회분 . 정유함량 . 엑스함량 . 등급 . 성미 . 귀경 . 효능주치 . 수치 . 용량 . 저장 . 금기 . 대표처방례의 순(25조항)으로 한다.

* 예 * ……植物類……

1. 詞 子

CHEBULAE FRUCTUS

(異名: 諶黎勒, 諶梨勒)

[起源] 使君子科(사군자과: Combretaceae)에 속한 落葉喬木인 詞子 Terminalia chebula RETZ 또는 纖毛詞子 T.chebula RETZ.var. tomentella KURT의 성숙한 과실을 건조한 것

[植物形態] 낙엽교목으로서 높이는 20-30m이다. 어린 가지는 녹색으로 갈색의 짙고 부드러운 털로 덮혀 있으며 樹皮는 회색-회백색으로 거칠게 갈라졌으며 두텁다. 잎은 單葉으로 互生 또는 對生

에 가까운 革質로서 난형 또는 타원형으로 길이 8-15cm 폭 3-8cm이다. 葉尖은 微尖形이고 葉基는 鈍形 또는 圓形으로 葉緣은 빛나며 葉柄은 굵고 1.5-3cm이다. 여러개의 穗狀花序로 이루어진 圓錐花序가 가지의 끝이나 葉腋에서 달리고 꽃은 淡黃色이고 兩性花이다. 악片은 杯狀으로 길이 2mm로서 끝은 5裂하였고 裂片은 삼각형으로 끝이 날카롭고 뾰족하다. 花瓣은 없고 雄예는 10개, 花藥은 黃色으로 심장형이며 子房은 下位 1室로서 胚珠는 2개, 花柱은 길게 돌출되어 있다. 核果는 길이 3-5cm 폭 1.5-2.2cm이며 倒卵形 또는 楕圓形으로 어린 과실은 녹색이나 익으면 황갈색이 되고 마르면 5개의 棱線이 나온다. 種子는 1개이며 開花期는 6-8월, 結實期는 8-10월 혹은 다음해 1-2월이다.

*絨毛詞子…어린 가지는 銅色의 絨毛로 덮혀 있으나 성숙하면 葉背部에서 탈락한다. 포편이 꽃까지 뻗어 있고 악 외에는 털이 없다. 果實은 卵形으로 길이는 2.5cm미만이다.

[藥材 性狀]이 약은 倒卵形 또는 楕圓形으로 길이 2-4cm 지름 2-2.5cm이다. 표면은 황갈색 또는 암갈색으로 약간 광택이 있고 세로로 5개의 두드러진 주름과 불규칙한 주름이 있으며 基部에는 圓形의 果柄 흔적이 있다. 질은 단단하며 果肉의 두께는 0.2-0.4cm로 황갈색 또는 갈색이다. 果核의 길이는 1.5-

2.5cm 지름 1-1.5cm이며 얇은 황색으로 거칠며 단단하다. 種子는 狹長紡錘形으로 種皮는 황갈색이며 子葉은 2개로서 백색으로 서로 말려 쌓여 있다. 이 약은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은 쓰고 조금 시며 鎚다.

[產地]原產地가 인도, 베어마로서 중국의 廣東, 廣西, 雲南省 및 南洋각지에서 재배하고 있다.

[懸微鑑別] · 外果皮는 5-8층의 厚壁細胞로서 안에 褐色物을 함유하며 中果皮는 厚壁細胞環 및 維管束등으로 조성되어 있다. · 外果皮 内側과 索狀組織의 사이에 2-5층의 圓形薄壁細胞가 있는데 細胞의 직경은 30-110um이며 색깔은 얇은 황색이고 벽은 비교적 두텁다. · 厚壁細胞는 다수의 纖維狀 厚壁細胞가 가로세로 교차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細胞의 길이는 70-356um 직경 5-20um이다. · 維管束은 불규칙하게 되어있으며 外果皮에 가까운 導管은 직경이 7-20 um이고 果核에 가까운 導管은 직경이 60um에 달한다. · calcium oxalate簇晶은 導管 가까운 薄壁細胞중에 있으며 직경은 30-80um이다. · 濕粉粒은 없다.

[成分]chebulic acid 3.5%, tanin 32%, 脂肪油 37% 및 没食子酸등이 있다.

[確認試驗]이 약의 가루 0.5g에 물 10ml를 넣고 잘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 여액에 염화제2철 시액 1-2방울을 넣을때 어

두운 자색을 나타내며 gelatin시액 1-2방울을 떨어 뜨리면 백색의 침전이 나타난다.

[乾燥減量] 12.0% 이하(6시간)

[灰分] 2.0% 이하

[酸不溶性 灰分] 0.4% 이하

[엑스함량] 물액스 20.0% 이상, 묽은 에탄올 엑스 35.0% 이상, 에텔 엑스 10.0% 이상

[등급] 이 약은 5-6개로 된 세로주름과 황갈색의 광택이 있고 질이 단단한것이어야 한다.

[性味] 溫 苦酸澀 無毒

[歸經] 肺, 胃, 大腸

[效能 主治] 敛肺 滋腸 下氣

治 久咳失音 久瀉 久痢 久嗽不止 咽痛音啞

[修治] 敛肺降火에는 生用하고 滋腸止瀉에는 煙熟(麥熟)하거나 炒하여 去核한 후 사용한다.

[用量] 3-9g

[저장] 건조한곳에 저장한다.

[금기] 外邪未解한 者나 濕熱火邪가 있는 者는忌한다.

[代表處方例] 海青丸(治火鬱嗽 및 肺脹氣急)

八柱散(治滑泄不禁)

……중략……

336. 稀 簾 草

SIEGESBECKIAE HERBA

(異名: 鮎強子, 風濕草)

[起源] 菊花科(국화과: Compositae)에 속한 1년

생 草本인 진득찰 Siegesbeckia glabrescens MAKINO과 同屬 近緣植物의 全草를 건조한것

[植物形態] 1년생 草本으로 높이 35-100cm 이며 줄기는 곧추서고 紫色을 띠며 가지의 윗부분은 회백색의 짙고 부드러운 털과 紫褐色의 腺毛가 密生한다. 잎은 對生하고 葉柄이 있으며 卵形 혹은 卵狀三角形으로 길이 5-14cm 나비 3-9cm로 葉基部가 아래로 늘어나 날개처럼되고 葉尖은 뾰족하며 葉緣은 불규칙한 톱니가 있으며 양면 모두 긴 털로 덮혀있다. 보통 윗부분의 잎은 위로 감에 따라 작아지며 긴타원상의 피침형이 된다. 頭狀花序는 頂生 혹은腋生하며 배열되어 圓錐狀을 이루고 花梗은 회백색의 짙고 부드러운 털이 있다. 總苞片은 2줄이며 外片은 5개로 주걱형이고 內片은 10-12개로 倒卵形인데 內外片 모두 腺毛가 있다. 꽃은 雜性으로 황색이며 가장자리의 암꽃은 舌狀花로 끝이 3개로 얇게 갈라지고 柱頭는 2개로 갈라져 있으며 管狀花는 兩性으로 끝이 5개로 갈라지며 雄에는 5개이고 子房은 下位이며 柱頭는 2개로 갈라지며 모두 열매를 맺는다. 瘦果는 倒卵形으로 약간 굽으며 4개의 모서리가 있고 冠毛는 없다. 開花期는 8-9월이며 結實期는 9-10월이다.

[藥材性狀] 이 약의 줄기는 方柱形으로 가지가 많이 갈라졌고, 길이 30-110cm 지름

0.3-1cm이다. 표면은 灰綠色, 黃褐色 또는 紫褐色으로 세로로 흄과 가는 주름이 있고, 회색의 부드러운 털로 덮혀 있으며 마디는 뚜렷하고 약간 팽대되어 있다. 질은 약하며 절단하기 쉽고 단면은 황백색 또는 帶綠色으로 體部는 넓고 類白色이며 속이 비어 있다. 잎은 對生하고 葉片은 주그리져 말려 있고, 펴보면 卵圓形으로 灰綠色이고 鋸齒가 있으며 양면에 모두 柔毛가 있고 主脈이 3出하였다. 간혹 줄기끝이나 葉腋사이에 황색의 頭狀花序가 있으며 바깥쪽으로 주걱모양의 總苞片이 있다. 이 약은 특이한 냄새가 조금 있고 맛은 조금 쓰다.

[產地] 우리나라 각지에 분포한다.

[懸微鑑別] 葉과 花梗表面 制片

上表皮 細胞는 비교적 규칙적이며 垂周壁은 편평하고 반듯하며 下表皮細胞는 비교적 불규칙하고 垂周壁이 물결모양으로 구부러졌으며 氣孔은 일정하지 않다. 保護毛는 비교적 작고 짧다. 花盆粒은 圓形으로 직경이 55um이며 표면에 비교적 빽빽한 棘狀突起가 있으며 萌發孔 3개가 있다.

[成分] 苦味質 darutin 및 alkaloid가 함유되어 있다.

[등급] 잎이 많고 가지가 어리며 질은 녹색으로 꽂이 아직 피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性味] 寒 苦 無毒

[歸經] 肝, 腎

[效能主治] 祛風濕, 通經絡, 清熱解毒.
治風濕痺痛, 筋骨無力, 腰膝酸軟, 四肢麻痺, 半身不遂, 風疹濕瘡.

[修治] 잡질을 제거하고 癰腫과 濕疹에는 生用하고 風濕痺證에는 酒蒸 (稀敘: 黃酒 = 100kg : 20kg)하여 쓴다.

[用量] 9-12g

[貯藏]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곳이어야 한다.

나. 動物性 韓藥材

· 한약명 · 생약명 · 이명 · 기원 · 동물형태
· 약재성상 · 산지 · 성분 · 확인 · 시험 · 순도
시험 · 건조감량 · 회분 · 산불용성 · 회분 · 엑스함량 · 등급 · 성미 · 귀경 · 효능 · 주치 · 수
치 · 용량 · 저장 · 금기 · 대표처방례의 순서대
로한다.

예 ……動物類……

337. 鷄內金

GALLI STOMACHICUM CORIUM

(異名: 鷄肫膜, 鷄肫內黃皮, 鷄黃皮)

[起源] 雉科(꿩과: Phasianidae)에 속한 鷄 Gallus gallus domesticus BRISSON 의 모래주머니 内膜을 건조한 것

[動物形態] 집에서 키우는 가축으로 부리는 짧고 단단하며 圓錐狀이고 윗부분이 구부러졌으며 鼻孔은 裂狀으로 鱗狀瓣으로 덮혀있다. 눈은 瞬膜이 있으며 머리 부위에 숫컷은 크고 암컷은 작은 肉冠과 肉瓣이 있다. 喉部 양쪽으로 褐紅色의 살이 쳐져있으며 날개가

짧아 날지는 못한다. 다리는 튼튼하여 跖, 距, 趾는 비늘로 덮혀있는데 趾는 4개로서 앞에 3개 뒤에 1개이다. 뒤의 1개는 짧고 작으며 앞의 3개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곳에 있다. 수컷은 跖距 윗쪽으로 距와 尾가 발달되어 있으며 날개짓을 한다. 수컷은 암컷에 비해서 크고 깃털색이 아름답다. 곡식과 蟲類를 보통 먹고 자라며 집에서 키우는 관계로 교잡되어 종류가 많다.

[藥材性狀] 이 약은 부서진 원형의 조각으로 얇고 반투명하며 형태는 일정치 않으나 물결모양의 주름이 있다. 표면은 황색 또는 황갈색으로 너비 3-5cm 두께 2-3mm인데 늙는 턱의 경우는 흑색이다. 절단면은 교질상으로 광택이 있고 질은 딱딱하며 부서지기 쉽다. 이 약은 비린내가 조금나고 맛은 조금 쓰다.

[產地]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다.

[成分] ventiriculin, 角蛋白을 함유하고 있다.

[등급] 이 약은 크고 얕으며 황금색으로 구멍이 나지 않고 輪狀의 돌기가 많은 것이어야한다.

[性味] 平甘無毒

[歸經] 脾, 胃, 小腸, 膀胱

[效能主治] 健胃消食, 滋精止遺

治食積脹滿, 嘘吐瀉痢, 小兒疳積, 遺尿, 遺精

[修治] 잡질을 제거하고 生用하거나 清炒하여 사용한다.

[用量] 3-9g

[貯藏] 건조한곳에서 층해의 침입을 막도록 한다.

[代表處方例] 鷄腸散(治小兒遺尿)

……증약……

380. 虎 骨

TIGRIDIS OS

(異名:虎脛骨, 大蟲骨, 虎身骨)

[起源] 猫科(고양이과; Felidae)에 속한 동물인 호랑이 *Panthera tigris L.*의 骨格을 건조한 것으로, 頭骨과 四肢骨을 약용으로 하고, 雄虎의 前脛骨이 더욱 좋다.

[動物形態] 中大型 猛獸로서 길이 1.6-2.9m 꼬리 길이 1m 체중 180-320kg이며 암컷이 작다. 頭部는 둥글고 頸部는 비교적 짧고 눈은 둥글며 귀는 짧고 작다. 입 주위에 긴 수염이 있고 齒牙는 門, 犬, 白齒 3종이 있는데 모두 날카롭고 예리하며 혀는 결끄러우며 많은 거꾸로 된 갈구리가 있다. 몸체는 비교적 길고 털색깔이 매우 아름다우며 전체적으로 橙黃色으로 흑색의 줄무늬가 있는데 여름에는 색이 짙어지고 겨울에는 얇아진다. 腹毛는 흰색으로 역시 흑색무늬가 있다. 頭部는 흑색무늬가 비교적 치밀하고 눈 윗쪽으로 하나의 흰색부분이 있어 白額虎라 부른다. 鼻部는 갈색으로 무늬가 없고 耳背는 흑색이고 중간에 하

나의 圓形白斑이 있다. 頰部는 흰색이고 四肢는 튼튼하고 힘이 있으며 발톱은 갈구리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褐色무늬가 있는데 바깥쪽은 褐黃色이고 안쪽은 백색이다. 尾基部는 褐黃色이고 가운데 부분의 褐백이 서로 얹혀 고리모양을 이루며 꼬리끝은 褐색이다.

[藥材性狀] 이 약의 頭骨은 둥글고 背腹面은 납작한편이며, 주등이 부분은 짧고, 앞 이마의 上部에는 한개의 얇은 홈이 있으며, 頂骨의 後面에는 한개의 脊稜이 있고 觀骨은 굽고 크다. 上頷骨에는 門齒 3對, 犬齒 1對, 白齒 4對가 있고, 下頷骨에는 門齒 3對, 犬齒 1對, 白齒 1對와 牙齒 30개를 같이 가지고 있으며 門齒는 비교적 작고 犬齒는 圓錐形으로 굽고 크며 예리하다. 頸椎 7節, 胸椎 13節, 腰椎 7節, 薦椎는 3節이 합쳐져 한덩어리를 이루었고, 尾椎는 22-28節로 雙數로 되어 있다. 肋骨은 13對이며 肩胛骨은 2개로 扇狀 半圓形이다. 前肢의 上節은 하나의 肱骨로 되어 있으며 중간을 절단하면 筒狀을 나타내고, 兩端은 膨大하고 광활하며, 下端의 골이 붙었던 곳의 內側에는 한개의 楕圓形의 구멍이 있어 이것을 鳳眼이라 하며, 下節에는 骨이 2개가 있는데 尺骨은 비교적 길고 桡骨은 짧다. 後肢의 上節은 股骨하나로 되어 있으며 원주형으로 上端에는 內側를 향하여 들출된 球形의 股骨頭가 있고,

下端에는 긴원형의 움푹한 槽溝가 있어 膝蓋骨이 있는 곳이며, 膝蓋骨은 약간 원형으로 內面은 廣滑하고 두꺼우며 단단하고 무겁다. 下節에는 2개의 骨이 並列되어 있는데 頸骨은 비교적 굽고 크며 三棱柱形으로 正骨이라 하며, 肋骨은 비교적 가늘어 邦骨이라 한다. 前足은 5趾이고 後足은 4趾로 趾端에는 짧은 발톱이 붙어 있다. 虎骨의 표면은 고른 黃백색으로 油潤하고, 質은 견실하고 무겁다. 橫斷面에 있어서 肱骨은 불규칙한 鈍圓한 四棱形이며 주위의 骨質의 두께는 4-9mm이고, 頸骨은 鈍圓한 三角形으로 骨質의 두께는 4-5mm이며, 중심에는 骨髓腔이 있고 그 주위에는 骨質이 비교적 얕으며 骨髓腔의 약 1/3을 점유하고 骨髓는 회백색의 網狀으로 이루어졌다. 膝蓋骨의 단면은 타원형이며 길이는 약 2-3.7cm으로 骨髓腔이 없고 중간에는 엉성하고 불규칙한 骨質이 모여 이루어졌고, 주위의 骨質은 軟骨組織이며 비린내가 난다. 이 약은 약간의 특이한 고기냄새가 있고 맛은 비리다.

[產地] 중국의 東北지방과 華南지방의 山地에 많이 서식하고, 우리나라에도 서식하고 있다.

[成分] 骨質에는 인산칼슘과 탄산칼슘 및 단백질등이 함유되어 있다.

[등급] 이 약은 크고 무겁고 단단하며 黃白색인 것이어야 한다.

[性味] 辛 溫 無毒

[歸經] 肝 腎

[效能主治] 祛風定痛, 强筋健骨

治風濕痺痛, 脚膝軟弱, 四肢拘攣, 關節不利

[修治] 잡질을 제거하고 절단하여 砂灸하거나
酥灸하여 사용한다.

[用量] 12-20g

[貯藏] 건조한 곳이어야 한다.

[代表處方例] 木香保命丹(治一切中風諸症)

虎骨木瓜酒(治脚弱痺軟)

다. 鑽物性 韓藥

· 한약명 · 생약명 · 이명 · 기원 · 原鑽物形
태 및 · 제법 · 약재성상 · 산지 · 성분 · 확인시
험 · 순도시험 · 건조감량 · 회분 · 산불용성회
분 · 엑스함량 · 등급 · 성미 · 귀경 · 효능주치
· 수치 · 용량 · 저장 · 금기 · 대표처방례의 순
서대로 한다.

예

.....광물류.....

381. 輕 粉

CALOMELAS

(異名: 水銀粉, 汞粉, 銀粉)

[起源] 이 약은 水銀과 기타 물질(膽礬, 食鹽, 紅
土)을 혼합하여 加工 製造한 鹽化第
1水銀 Hg_2Cl_2 의 결정체이다.

[製法] 먼저 水銀 6斤 4兩, 膽礬 3斤半, 食鹽
3斤, 紅土 10大碗의 원료를 준비해
놓고 膽礬, 食鹽을 물 약 3斤으로 혼

합하여 水銀을 각반해서 粥狀態로
만든 후에 다시 紅土를 넣고 각반하
되 半濕半乾의 軟泥體를 만들고, 이
것을 10등분하여 손으로 이겨서 餅
頭모양으로 하여 鍋중에 砂泥를 깔
고 그 위에 올려 놓는다. 그리고 泄氣
를 방지하기 위하여 陶碗 혹은 磁盆
으로 鍋를 덮고 진흙으로 봉하여 고
정한후에 木炭 47斤을 이용하여 약
4회정도 가열하고 나서 그대로 22시
간 정도 두었다가 開鍋하면 雪花樣
의 多角形물질이 보이는데, 이것을
잡질을 제거하고 모은 것이다.

[藥材性狀] 이 약은 백색으로 냄새가 없는 곱고
무거운 가루로서 광택이 있으며 鱗片
狀 또는 雪花狀의 結晶 혹은 結晶性的
분말로 되어 있다. 공기중에서는 안정
하나 광선에 의하여 점차 회색으로 변
한다. 철기에서 가열하면 점차 황색에
서 푸른 연기를 내며 타고 찌꺼기를
남기지 않으며 강열하면 갈색의 증기
를 발생하지 않고 녹지 않으며 昇華된
다. 이약은 물, 에텔, 에탄올 또는 묽은
광산류에 거의 녹지 않는다.

[產地] 중국의 湖北, 河北, 湖南, 雲南 등 省에서
생산된다.

[成分] 주로 염화제1수은 Hg_2Cl_2 을 함유한다.
천연산을 角汞鑽 Horn-quicksilver이라 하며, 대개는 인공
적으로 만들며 無味無色의 鱗片狀 結
晶으로 때로는 담황색을 띠기도 한
다. 화학적으로는 甘汞이라 하며 乾

燥品은 HgCl을 99.9%이상 함유한다.

(性味) 寒 辛 有毒

(歸經) 大腸, 小腸

(效能主治) 外用殺蟲, 攻毒, 斂瘡, 内服祛痰消積, 逐水通便.

外治疥瘡, 頑癬, 脣瘡, 梅毒, 瘡瘍, 湿疹.

內治痰涎積滯, 水腫膨脹, 二便不利.

(修治) 研末하여 사용한다.

(用量) 外用에는 적당량을 쓰며 内服에는 0.1-0.2g을 丸劑나 膠囊에 싸서 복용하며 복용후 입을 헹구어낸다.

(貯藏) 건조한 곳에서 햇빛을 피하여 밀폐보존 한다.

(禁忌) 身體虛弱者니 孕婦는忌한다.

(代表處方例) 丹粉丸(治楊梅瘡)

丹車丸(治水腫二便秘結)

……증략……

[순도시험]

1) 암모늄염-이 약 1.0g에 수산화나트륨시액 5ml를 넣어 끓일때 발생하는 가스를 적신 적색 리트마스시험지가 청색으로 변하여 서는 안 된다.

2) 염화제이수은-이 약 1.0g에 에탄올 10ml를 넣고 5분간 혼들어서 건조한 여과지로 여과한 여액 5ml에 물 5ml, 염산 2방울과 유화나트륨시액 1방울을 넣을 때 액의 색은 다음의 대조액보다 진하여서는 안 된다.

대조액 : 염화제이수은 10ml에 물 1리터를 넣어 녹이고 이액 5ml에 에탄올 5ml, 염산 2방울과 유화나트륨시액 1방울을 넣는다 (0.01%이하)

[건조감량] 0.5%이하(황산데시케이타 5시간)

[등급] 이 약은 희고 크며 맑고 針狀結晶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볍고 수은주가 없는 것이 좋다.

408. 滑 石

TALCUM

(異名:液石,共石,脫石)

(起源) 이 약은 硅酸鹽類의 鐳物인 滑石의 덩어리이다.

(鑰物形態) 單砂晶系이다. 晶體는 六方形이나 菱形板狀을 나타내나 완전한 晶體는 극히 드물고 보통 粒狀과 鱗片狀의 치밀한 덩어리이다. 淡綠色, 白色, 灰色이며 條痕은 白色이나 淡綠色이다. 脂肪狀 光澤이 있으며 解離面은 珍珠狀을 나타내며 半透明-不透明하다. 硬度는 1이고 比重은 2.7-2.8로서 부드럽고 滑利한 느낌이 있다. 輝石, 透角閃石, 葉狀蛇紋石 등이 변화

되어 생긴 것으로 보통 變質岩, 石灰岩, 白雲岩, 菱미鑛등에서 產生된다.

[藥材性狀] 이 약은 扁平形, 斜方形 혹은 불규칙한 塊狀의 덩어리이다. 크기는 일정하지 않고 白色, 黃白色, 또는 淡藍灰色으로 양초모양의 광택이 있으며 半透明-不透明하다. 질은 軟하고 손으로 만지면 滑潤한 느낌이 있으며 吸濕성이 없고 물속에 넣어도 흘어지지 않는다. 이 약은 맛과 냄새가 없다.

[產地] 우리나라의 충주를 비롯한 각지의 鑛山에서 산출되며 중국은 江西, 山東, 江蘇, 陝西등지에서 산출된다.

[成分] 규산마그네슘[Mg₃(Si₄O₁₀)(OH)₂]인데 硅酸63%, 마그네슘32%,水分 5%를 함유하고,少量의 粘土, 石灰, 鐵 등을 함유한다.

[확인시험]

- 1) nitric acid 및 cobalt nitrate를 넣고 가열하면 淡紅色으로 변한다.
- 2) 염산에 녹지 않는다.
- 3) 이 약 0.5g에 건조한 sodium carbonate 1g을 넣고 골고루 같은 후 자기그릇에서 완전히 녹을때까지 태운후 식힌다. 중류수 10ml를 넣고 끓여 여과한 여액에 염산을 넣어 酸性을 만든후 다시 끓이면 조금씩 白色의 膠狀沈澱이 생긴다.
- 4) 이 약의 분말 0.2g을 백감구에 넣고 같은 양의 calcium fluoride 나 sodium fluoride분말을 넣고 혼든 후 硫酸(sulfuric acid) 5ml를 넣고 약하게 가열하면서 물을

한방울 떨어 뜨리면 白色 혼탁이 생긴다.

[등급] 이 약은 白色이며 滑潤하고 雜石이 없는 것이 좋다.

[性味] 寒 甘淡 無毒

[歸經] 膀胱, 肺, 胃

[效能主治] 利水通淋, 清熱解暑, 祛濕斂瘡
治熱淋, 石淋, 尿熱澁痛, 暑濕煩渴, 濕熱水瀉。

[修治] 잡질을 제거하고 研末하여 사용하거나 水飛하여 사용한다.

[用量] 9-24g(外用은 適量)

[貯藏] 건조한 곳이어야 한다.

[禁忌] 孕婦는 慎用한다.

[代表處方例] 八正散(治膀胱積熱便隆)

六一散(治暑熱煩渴)

潰爛方(治皮膚濕疹)

찾아내기…영문색인

한글색인

5. 韓藥材規格集과 한국(대한약전 6개정), 중국, 일본의 약전과의 본문 내용 비교
…葛根…을 예로 들어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1) 韓藥材規格集의 葛根 내용

葛根

PUERARIAE RADIX

(異名: 건갈, 감갈, 분갈)

[起源] 豆科(콩과: Leguminosae)에 속한 多年生藤本인 죽Pueraria thunbergiana BENTH(P.lobata(WILLD)OHWI)와 甘葛P. thomsonii BENTH의 뿌리를 外皮를 벗겨 건조한 것

[植物形態] 多年生 落葉 藤本植物로서 길이는

10m이며 전체적으로 황갈색의 굵은 털로 덮혀 있다. 뿌리는 비대하고 多肉質이다. 잎은 互生하고 3出複葉으로서 頂生하는 小葉은 菱狀圓形이며 길이와 지름이 10-15cm로서 비교적 크며 側生하는 小葉은 넓은 卵形으로 서로 대칭으로 있으며 비교적 작다. 葉尖은 점차 뾰족해지며 葉基는 鈍圓形이고 가장자리가 빛나거나 얇게 3개로 갈라진다. 葉柄은 길이 10-15cm로서 頂端의 小葉柄이 비교적 길며 托葉은 盾形으로 중앙부근에 붙어 있으며 1.5-2cm로서 일찍 떨어진다. 總狀花序는腋生하며 곧추서고 짧은 花梗을 가진 꽃은 밀집하며 苞片은 좁은 線形으로 일찍 떨어지고 小苞片은 線狀披針形이다. 蝶形의 꽃은 藍紫色이거나 紫色으로 1.5-2cm이며 악片은 鐘形으로 5개로 갈라졌다. 雄예는 10개이고 子房은 線形으로 花柱은 구부려져 있다. 莖果는 넓은 線形으로 편평하며 길이 6-9cm 나비 0.7-1cm로서 황갈색의 길고 딱딱한 털이 밀생한다. 種子는 난원형으로 편평하며 적갈색으로 광택이 있고 개화기는 8월, 결실기는 9-10월이다.

*甘葛 : 줄과 대체적으로 서로 비슷하나 줄기와 가지에 褐色의 短毛로 덮혀 있거나 길고 딱딱한 털이 있으며, 줄은 잎 아래면이 粉狀인 반면 甘葛은 粉狀이 없다.

[藥材性狀] 이 약은 세로로 자르거나 사각으로

자른 長方形 혹은 작은 둉어리로서 길이 5-35cm, 너비 5-10cm, 두께 0.5-1cm이다. 표면에 남아 있는 外皮는 담갈색으로 세로 주름이 있으며 영성하다. 자른면은 전분립이 풍부하며 황백색 또는 회백색으로 원형의 무늬가 뚜렷하고 표면에 갈색의 木栓皮가 보이기도 한다. 질은 질기며 섬유성이 강하다. 이 약은 냄새가 없고 맛이 달다.

*甘葛 : 섬유성이 비교적 약하며 어떤 것은 紹毛狀인 것도 있으며 질은 단단하고 무거우며 粉性이 풍부하다. 전체적으로 圓柱形, 類紡錐形, 半圓柱形으로 길이는 12-15cm, 직경 4-8cm이다.

[產地] 우리나라 각지에 분포하고 중국에서는 河南, 湖西, 浙江, 四川 등에 분포한다.

[懸微鑑別] 皮部는 이미 제거되었으나 殘留된 부분이 있다면 皮層에 石細胞가 있다. 木部導管群과 木纖維束이 서로 간격을 두고 배열되어 있으며 導管 직경은 300um이고 纖維束주위의 薄壁細胞는 ca-oxalate方晶을 함유하고 있다. 木質部射線은 3-8列의 細胞가 있으며 물결모양으로 구부려져 있다.

薄壁細胞는 소량이지만 전분립을 함유하고 있다.

*甘葛 - 導管이 비교적 작아 직경이 76um정도이며 하나나 혹은 소수가 무리를 이루어 흩어져 있다. 木纖維束도 비교적 적으며 木化가 안되었거나 약간 木化되어 있으며 木薄壁細胞는 많은 전분

립을 함유하고 있다.

[成分] flavonoid물질이 1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주요한 것은 daidzin, daidzein, puerarin이며 다량의 전분(19-20%)을 함유하고 있다.

甘葛은 flavonoid함량이 칡에 비해서 적다(2.22%).

[확인시험] 분말 10g을 취하여 메탄을 70ml를 넣고 수욕상에서 10분간 가열하고 여과한다. 여액 1ml를 취하여 진한 염산 4-5방울과 마그네슘 소량을 넣고 수욕상에서 3분간 끓이면 황색을 나타낸다.

[건조감량] 17%이하

[灰分] 6%이하

[水分] 14.0%이하

[酸不溶性灰分] 0.2%이하

[엑스함량] 에탄올 엑스 18.0%이상

[등급] 뿌리가 크고 질은 단단하며 색깔은 백색이고 粉性이 많으며 纖維性이 적은 것 이어야 한다.

[性味] 平 甘辛 無毒

[歸經] 脾, 胃

[效能主治] 升陽解肌, 透疹止瀉, 除煩止渴
治 傷寒溫熱, 頭痛項強, 癪疹不透, 熱病, 口渴, 消渴, 高血壓, 頸項強痛

[修治] 잡질을 제거하고 洗淨하여 사용하고 止瀉에는 煙用한다.

[用量] 9-15g

[貯藏]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곳으로 별래의 침입이 쉽지 않은 곳에 저장 한다.

[代表處方例] 葛根湯(治傷寒陽明 頸背強수수)

升麻葛根湯(治癰疹初期)

白朮散(治吐瀉日久津枯煩滿引飲
或欲成慢驚)

2) 대한약전 6개정의 葛根내용

……중략……

3) 중국약전의 葛根내용

……중략……

4) 일본약전의 葛根내용

……중략……

5)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과 주해서의
葛根내용

……중략……

III. 考 察

한약재의 안정성과 효용면과 같은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은 한약물 규격화 작업을 필요로 한다.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한의학의 약물사용은 현대적인 개념에서 그 기준을 설정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그러나 자연물을 그대로 취하여 간단한 가공을 거치는 관계로 그 규범을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산지, 기후, 유통, 저장등의 기본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의약품으로 사용되기 위한 가공, 수치등의 과정이 개인의 직관과 양식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온 관계로 이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인체에 직접 투여되어지고 있는 염연한 의약품의 하나로서 차근차근 부족한 부분을 정리해 나가야 하는 것도 한의계에 주어진 임무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한약전안에 소위 생약이

라는 이름으로 한약재가 기재되어져 있으나 이는 생약학적인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볼 수 있다. 한의학의 이론 자체는 동양의학적인 사상과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 현대의 객관적인 방법을 추가한다면 21세기의 약물로서 과거의 조상업적을 활용하게 재치장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우기 한약사제도의 설치는 한의학계의 醫藥의 구도에 대한 새로운 관계설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기존의 한약재 규격내용등을 총정리하는 작업은 꼭 필요한 사항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에 한의학계의 주도로 韓藥材規格集의 제정을 제안하며 그 제정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동양 3국(한국, 중국, 일본)의 약전을 살펴보면

한국은 1958년 10월 10일 대한약전 제정공표후 1992년 3월의 6개정에 이르기 까지 種數에 있어서 635→1428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생약재에 해당하는 種數는 130종(6개정)이며 6개정을 거치면서 각 개정사이에는 평균 6년 8개월이 소요되었다. 중국은 1950년부터 작업에 착수하여 1957년 중국약전이 만들어진 후 1989년 12월의 5개정에 이르기까지 종수에 있어서 531→1760으로 증가하였고 이중 中藥材의 種數는 509종(1989년판)이며 5개정을 거치면서 각 개정사이에는 평균 8년이 소요되었다. 일본은 1887년 7월 1일 일본약국방이 시행된 이후 1992년 4월의 12개정에 이르기까지 種數에 있어서 468→1221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생약재는 178종(1991년판)이며 12개정을 거치면서 각 개정사이에 9년 5개월이 소요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별로 사정에 따라 어떤 시기에 (중국:文革 일본:2차 세계대전) 개정간격이 넓어져 있는 것을 볼수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최근으로 가까워질수록 개

정간격이 5년, 4년, 5년 등으로 평균개정간격에 비해서 짧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합성의약품의 발달로 소외되었던 헌약재(생약재)는 196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합성의약품의 부작용과 천연약품의 개발욕구에 따라 약전에 본격적으로 기재되기 시작됨을 볼수 있다(한국: 1968년 중국: 1965년)

목차 구성에 있어서 동양 3국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나 중국에서는 1부에서 중약재를 취급했다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수 있다.

생약재의 기재순서는 대한약전과 일본약전이 생약학적인 내용이라면, 중국약전은 중의학적인 내용에 이화학적인 방법을 추가한 모양이며 특히 일본약전은 해설서에서 생약학적인 내용과 분류학적인 내용, 약리학적인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한약전의 한약(생약)규격집 주해서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약전의 내용을 조합배열시킨것을 볼수있다.

통칙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은 거의 일치하며, 중국약전에는 중의학적인 내용(포제, 저장 등)이 상당부분 기술되어 있음을 볼수 있다.

論者가 제안하는 韓藥材規格集은 위의 3국의 내용을 참고하여 전국 한의과대학의 본초학 공동교재에 수록된 408종(식물:336종 동물:44종 광물:28종)을 대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46종 참고문헌을 중심으로 1차 작업에는 25부류로 나누어(본론 참조) 정리하였다. 약물기재순서에 있어서 대한약전이 한글 가나다순이었으며 중국약전이 약물명 첫글자의 획수순이었고 일본약전은 かを 순이었다. 이에 韩藥材規格集은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의 한약재를 한글 가나다순으로 하면 이상적일것으로 생각된다. 총칙은 한약재의 부분적인

각조 조항을 설명할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한약 재시험법은 본규격집 25부류중 시험법을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첨가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되어질 부분인 분말한약재의 감정부분, 기기분석, 정량법, 약리작용, 화보추가문제등의 확정에 따라 탄력있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확정되는 내용을 韓藥材規格集과 韓藥材規格集 해설서로 분류, 재편시키는 작업이 뒤따라야 될 것이다.

韓藥材規格集을 제정시킴에 있어서 그 방법론으로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다.

1) 정부의 상황인식으로 정부에서 주도하여 대한한의사협회에 의뢰—학계의 정리과정을 거쳐—정부에서 공표하는 안

2) 한의사협회의 주도로 학계의 정리를 거쳐—정부에 제정 요청—정부의 승인, 공표를 거치게 하는 안

위의 안을 시행함에 있어서 선결 및 동시 해결 사항으로 독립된 한의약법제정이나 대한약전의 소위 생약이라고 불리우는 내용에 대한 한의학계의 능동적인 참여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의계의 전체의견이 집약되는 정책의 결정이 요구되며 이와같은 방법을 통하여 한약재를 비롯한 한의계의 현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韓藥材規格集의 제정과정에서 예상되는 유관단체 및 한의학계 일부분의 상대적인 반발에 대한 충격을 흡수시킬수 있는 제도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내용이 조정되어 확정할 경우 유관단체, 유관학계와의 협조는 정책적인 면과 학술적인 면에서 더욱 손색없는 내용이 될 것이다.

학술적인 면을 정리함에 있어서

1) 유관학계는 1차로 다듬어진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인력 그룹으로서 최소한 한의학계, 식물분류학, 식물형태학, 식물해부학, 동물분류학, 동물형태학, 광물분류학, 광물형태학, 화학, 생약학의 전문 인원이 필요하다.

2) 1차로 만들어 질 韓藥材規格集에는 분말한약재의 감정부분, 기기분석, 정량법, 약리작용, 화보추가문제등이 빠져 있는 바, 1차 韓藥材規格集의 편찬과 아울러 곰 바로 위의 내용에 대한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이의 내용을 다시 규격집과 해설서로 분류, 기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한의계의 위치 설정과 현안 문제의 장기적인 타개책으로 꼭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나 대학의 한의학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한약재부분의 보완이 요구되며 이것은 바로 한의학과와 한약학과 즉, 한의사와 한약사의 위치설정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한의학계 전체의 중지를 모아 한의사협회의 주도로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학술적인 차원에서 한약재를 정리하였는 바, 이의 내용에 대한 삽입, 삭제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작업은 한의계의 위치를 명확히 해주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 규격집은 독립된 한의약법이 제정된다면 한약전으로 틸바꿈 할 수 있는 관계로 한의계의 전체 의지로 빨리 진행시켜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

IV. 結 論

- 주영승 : 韓藥材 規格集 制定方案에 관한 研究 -

韓藥材規格集의 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며, 이의 수행을 위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韓藥材規格集 제정을 위해서는

- 한의사협회의 주도로 정책적인 부분과 학술적인 부분을 병행하여 처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 및 유관단체와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그 전문성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 학술적인 부분은 1차로 전국한의과대학의 공동교재에 수록된 식물 336종 동물 44종 광물 28종 총 408종에 대한 내용을 25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할 것을 제안한다.
- 상기 내용의 완성을 위해서 한의계(본초학), 식물분류학, 식물형태학, 식물해부학, 동물분류학, 동물형태학, 광물분류학, 광물형태학, 화학, 생약학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韓藥材規格集 편찬위원회(학술분야)의 구성을 제안한다.
- 새로운 韓藥材規格集의 작업과 아울러 한의사협회는 정책적인 부분(한의약법 및 한약전제정건, 대한약전의 생약의 위치 설정건, 한의계와 한약계의 위치 설정건 등)의 명확한 정립과 진행을 시켜야 할 것이다.
- 1차 韓藥材規格集의 내용이 완성되는 대로 바로 부족한 부분의 보충을 위한 2차 韩藥材規格集의 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韩藥材規格集 수재 약재에 대한 화보제작을 동시에 시행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參 考 文 獻

- 李昌福 : 大韓植物圖鑑. 鄉文社. 1979
- 金在信 : 天然藥物大事典. 南山堂. 1984
- 국립보건원 :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1). 1987
- 보건사회부 :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 1987
- 高庚式. 金潤植 : 原色 韓國 植物圖鑑. 아카데미서적. 1988
- 金泰正 : 韓國 野生花 圖鑑. 教學社. 1988
- 尹國炳외 2人 : 山野草旅行. 石悟出版社. 1988
- 池亨浚. 李尙仁 :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 주해서. 한국메디칼이엑스사. 1988
- 禹漢貞. 尹茂夫 : 原色 韓國 鳥類圖鑑. 아카데미서적. 1989
- 陸昌洙 : 原色 韓國藥用植物圖鑑. 아카데미서적. 1989
- 尹國炳. 張俊根 : 몸에 좋은 山野草. 石悟出版社. 1989
- 趙武衍 : 原色韓國樹木圖鑑. 아카데미서적. 1989
- 尹平燮 : 韓國의 野生植物. 興農種苗出版部. 1990
- 鄭普燮. 辛民教 : 鄉藥(生藥)大事典. 永林社. 1990
- 高庚式 : 韓國植物 檢索圖鑑. 아카데미서적. 1991
-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 : 本草學. 永林社. 1991
-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材 編纂委員會 : 本草學實習. 永林社. 1991
- 보건사회부 : 대한약전 제6개정(제1부. 제

- 2부). 대한보건공 정서협회. 1992
19. 李時珍 : 本草綱目. 宏業書局. 1982
20. 趙學敏 : 本草綱目拾遺. 旋風出版社. 1978
21. 吳其濬 : 植物名實圖考. 臺南北一出版社. 1974
22. 吳儀洛 : 本草從新. 杏林書院. 1972
23. 武進謝觀 : 中國醫學大辭典. 商務印書館. 1958
24. 中國醫學科學院 藥物研究所 編 : 中藥志. 人民衛生出版社. 1961
25. 上海中醫學院 編 : 中草藥學. 商務印書館. 1975
26. 載新民 : 中國藥材學. 啓業書局. 1975
27. 全國中草藥匯編 編寫組編 : 全國中草藥匯編. 1978
28. 顏焜熒 : 原色常用中藥圖鑑. 南天書局. 1979
29. 劉馬華南 : 中國藥物學. 國立編譯館. 1980
30. 許喬木. 邱年永 : 原色野生食用植物圖鑑. 南天書局. 1980
31. 高本釗 : 中藥大辭典. 新文豐出版公司. 1981
32. 任仁安 等 : 中藥鑑定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3
33. 載新民 : 中藥鑑別手冊. 啓業書局. 1985
34. 邱年永. 張光雄 : 原色臺灣藥用植物圖鑑(2). 南天書局. 1986
35. 葉銘洪 : 治癌中藥及處方. 華聯出版社. 1986
36. 中國生草藥研究發展中心 : 中國草藥手冊. 宏業書局. 1987
37. 廣東省藥品檢驗所 : 中藥材鑑別原色圖譜. 廣東科技出版社. 1988
38. 陣存仁 : 漢方醫藥大事典. 松嶽. 1988
39. 徐國鈞 : 中草藥彩色圖譜. 福建科技出版社. 1989
40. 中華人民共和國 衛生部 藥典委員會 : 中華人民共和國藥典. 人民衛生出版社. 1990
41. 廣西壯族自治區藥品檢驗所 : 中藥材真偽鑑別圖譜. 廣西科學技術出版社. 1991
42. 沈保安 외 7人 : 中國常用中草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1
43. 中華人民共和國 衛生部 藥典委員會 : 中華人民共和國藥典 中藥彩色圖集. 1991
44. 徐國鈞 : 常用中草藥彩色圖譜.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92
45. 鈴木郁生 외 2人 : 日本藥局方 解說書 第12改正. 廣川書店. 1991